

# 탄핵 이후 '추경·복지확대' 주목

### 내수경기 위축 타개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된 가운데 탄핵 이후 나타날 한국 경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는 가운데 금리인하, 대규모 추경, 복지예산 확대 등의 경제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영향으로 부진했던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생산 확대로 파급되고 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 102.0에서 11월 95.7로 떨어진 이후 2017년 2월 99.4까지 4개월 연속으로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한편 대선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고비로 체감 내수 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관계없이 하반기 새 정부 탄생 후 내수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작년 말 실시된 김영란법과 최순실 사태로 내수 경기가 급랭했으나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기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주택 매매 심리는 크게 위축된 반면, 저금리로 일드 헌팅 성격의 자금들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전



화이트데이 케이크로 사랑을

파리바게뜨가 13일 서울 중로구 파리바게뜨 종로시그니처점에서 화이트데이를 맞아 시즌 한정 스페셜 케이크를 비롯한 기획 제품 70여 종을 선보이고 있다.

월세 부담이 극심했으나 앞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수 경기는 자연스레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대규모 추경이 시행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키움증권 홍춘욱 연구원은 "내수경기 위축, 중국 사드 보복으로 빛어준 중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비롯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2017년 3분기 초를 전후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증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라 금통위가 6월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고, 이후 7월 추경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또 "정책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하반기 중 대규모 추경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력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이 대체로 복지예산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인하 조치는 없는데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동부증권 장희탁 연구원은 "이번 탄핵과정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됐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민주화 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묶어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대선 주자들은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시스

## 은행들,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관망

### 예금금리 1%대 초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연 5% 육박

시장금리가 들쭉이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차츰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틈타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벌리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시중은행 상품의 예금금리(12개월 기준)

는 1%대 초반대로 대부분 작년 6월 이후 요지부동이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이 작년 6월9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자 일제히 수신금리를 낮췄다.

국민은행의 국민슈퍼정기예금금리는 6월13일자로 1.30%에서 1.10%로 0.2%포인트 낮췄다. 1.50%에서 1.20%로 떨어졌다.

반대로 대출금리는 오름세다.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뛰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이달 들어서는 주택담 대출 금리는 혼합형 5년 고정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0.04%에서 0.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3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시장금리가 요동치고 있어서다.

/뉴시스

## 연금상품 "늦게, 오래 받을수록 유리"

### 수령 기간 10년 미만이면 기타소득세 부과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연금수령 나이 많을수록 세율 낮아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념해야 한다.

또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해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토해내는 소득세가 적어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연금 개시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수령시점)를 13일 안내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단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구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합쳐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면 220만원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수령 기간뿐 아니라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도 다르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69세의 세율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연금원 분석 결과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만5000원이나 연금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원 관계자는 "연금상품은 수령시점에 따라 절세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해 세금혜택을 놓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BMW코리아, 미래차 사업 강화 '전략기획팀' 신설

BMW 그룹 코리아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부문에서 국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략기획팀은 차량 디지털화, 차세대 전기차, 자율주행기술 등 BMW의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전략기획팀 부서장으로는 최일용 이사가 선임됐다. 최 이사는 삼성SDI, 한국IBM, SK에너지 등에서 근무하며 20여년간 정보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전략 기획을 담당했던 전문가다.

한편,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볼프강 하커 전무가 마케팅 총괄을 맡게 된다. 하커 전무는 BMW

에서 X3, 7시리즈 등의 부품 전략 업무를 담당했고 개발부서에서 BMW, MINI, 롤스로이스의 주행 감성, 서스펜션, 엔진 등의 전략 수립을 맡았다.

현 마케팅 총괄 이재준 전무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총괄로 옮겼다. 이 전무는 BMW그룹 코리아에서 세일즈와 AS부서를 거쳐 마케팅을 총괄해 왔다.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사장은 "외부 전략 기획 전문가와 상품 및 마케팅 전문가 영입, 그리고 기존 핵심 인재의 전략적 배치는 BMW그룹 코리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